

포스트모던 계열 작가 돈 데릴로(Don DeLillo)의 작품 중 《화이트 노이즈(White Noise)》(Penguin Books)라는 소설이 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백색잡음'쯤 될까. 백색잡음이란 이 세상에 편재한 무수한 잡음, 주파수 전영역에 걸쳐 있는 잡음이다. 우리가 가시권에 있는 스펙트럼으로 색을 구분하지만 빛은 모두 흰색이듯, 주파수 역시 우리가 특정 주파수를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사용할 뿐 수많은 백색잡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데릴로가 소설에서 그리는 '화이트 노이즈'는 TV를 위시한 대중매체와 소음, 욕망으로 범벅된 인간 군상, 슈퍼마켓과 같은 대규모 소비현장, 도처에 노출돼 있지만 TV의 스펙터클로만 인지되는 재난, 방사능, 공해의 위험 등으로 구성된 우리 시대 모습이다.

잡음 속을 표류하는 인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현대의 무수한 잡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단지 자신이 접촉하는 사람, 자신이 접촉하는 채널, 자신이 가까이 하는 정보 이외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뿐이다. 끊임없이 방사되는 전파와 오염물질의 파장은 우리가 사는 환경이며 우주다. 죽음에 이르기 전에는 일상이 끝이 없듯 세상의 모든 것은 라디오파나 텔레비전 전파처럼 끝없이 반복된다. 때로 해커나 정체 모를 전파, 음모이론과 같은 낯선 메시지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텔레비전의 발명 이후 전파를 통해 흘러나오는 영상신호는 우리에게 자연적인 환경이 됐다. 네트워크와 이종교배되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미디어는 사람들에게 백색잡음을 만든다. 광고의 잡음도 마찬가지. 너무나 많은 광고의 이미지 더미에 눌러 광고메시지는 들어오지 않는다. 이미지가 강렬한 몇몇 광고만이 잠시 잔상을 남길 뿐이다. 눈길을 끄는 광고 중 LG텔레콤의 휴대폰 '카이'가 있다.

리들리 스코트 감독이 조지 오웰의 《1984》(문예출판사)를 원용해 만든 매킨토시 광고 때문에 신선도는 덜하지만 SF영화의 한 장면같은 서사가 펼쳐진다. 빅브라더의 획일적인 논리가 모든

사람의 의식을 지배하는 시대. 지배자가 세팅한 체계에 따라 사람들은 기계처럼 무의식 상태에서 자판만을 두드린다. 이 때 인간의 자유의지를 일깨우는 '푸른 벨소리'가 울리고, 벨소리에 깨어난 모델 이정재가 유니폼을 벗어 던지며 시스템을 부수기 위해 달려간다. 다음편은 영화 <블레이드 러너>를 연상케 하는 스토리. 산성비 내리는 미래사회에서 레지스탕스인 이정재가 '카이'로 교신을 시도하고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과 함께 거대한 매트릭스, 빅브라더를 파괴한다.

문화 커뮤니티의 공간으로서 휴대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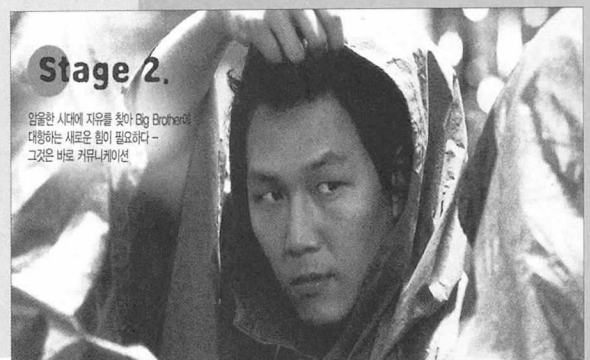
LG텔레콤의 '퓨전 커뮤니케이션 카이(khai)' 브랜드는 신세대를 겨냥한 새로운 문패다. 'x'(khai)는 영어의 X에 해당하는 희랍어. 수학용어로 무한수를 뜻한다. 17세에서 25세 사이의 소비자들을 겨냥한 이 브랜드는 통신 서비스뿐 아니라 패션·스포츠·음악·영화 등을 연계시켜 각종 할인혜택을 주고 인터넷 가상공간을 만들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휴대폰이 단순한 통화수단이 아닌 '문화 커뮤니티' 공간임을 표방하며, 이것이 광고가 말하는 자유 커뮤니케이

인간의 자유의지 일깨우는 푸른 벨 소리

LG텔레콤의 휴대폰 '카이' 광고

마정미 | 광고평론가

푸른 벨소리가 울리자 기계처럼 살던 인간들이 빅브라더에 도전한다. 이 때 저항세력을 하나로 묶은 매체는 휴대폰. LG텔레콤의 '퓨전 커뮤니케이션 카이'는 휴대폰이 문화 커뮤니티 공간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빅브라더의 출현은 미래의 일이 아니다. 우리를 둘러싼 일상성과 백색잡음 자체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꺾는 거대한 벽인 것이다.



조지 오웰이 예측한 미래 사회는 지금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대중매체와 소비문화, 그리고 인터넷이 바로 빅브라더인 것이다. 사진은 '카이' TV광고의 한 장면.

선이 충만한 신세계인 셈이다.

그러나 언어와 역사가 억압되며 획일화와 집단 히스테리가 난무하는 전체주의 사회를 그린 《1984》는 오늘날 작가가 1949년에 예측한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현현해 있다. 대중매체를 통해, 소비문화를 통해, 우리가 애용하는 인터넷을 통해, 빅브라더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때문에 우리가 부숴야 할 도그마, 탈출해야 하는 장벽은 르페브르가 《현대세계의 일상성》(세계일보사)에서 지적하듯 우리의 일상에 있는지도 모른다. 일상성과 백색잡음 속에 파묻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 '푸른 벨소리'는 바로 내 안에 울려야 할 경종이다.●